

## 〈스카이캐슬〉과 〈펜트하우스〉의 수용자 댓글 연구

김경애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 A Study on the Comments of the Drama 〈Sky Castle〉 and 〈Penthouse〉

Kyung-Ae K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okwon University

**요약** TV 드라마는 대중의 욕망과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가장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매체이므로, 특정 항목에 대한 수용자 인식을 직접적으로 살피기에 용이한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 수용자의 아비투스<sup>1</sup>가 어떠한지 살피기 위해 화제성이 높고, 제재와 서사구조가 유사한 두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펜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수용자 댓글을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살핀 결과, 두 작품이 유사한 제재와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이 교육 문제를 매우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은 전자를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드라마로 평가한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점은 중심사건과 긴밀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V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상업성을 지닌다. 그러나 서사가 현실을 적절히 그려내어 수용자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수용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져 대중성을 위반하는 기묘한 계몽성이 형성되기도 한다. 중심사건이나 중심 갈등이 시의적절하고, 주요 인물의 상황이나 심리에 공감하게 되어 개선과 개혁을 목표로 하는 건강한 공론의 장이 형성된 결과이다. 정시/수시 논쟁에 주목하여 살피면, 한국 현대 TV 텍스트 수용자들은 대사회적 성향이 매우 높고, 특히 공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수용자들의 논쟁 기저에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구현하고 싶다는 욕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수용자들이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존재에서 작품의 빈틈을 읽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형성하는 주체로 변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audience comments on two dramas, "Sky Castle" and "Penthouse", which were highly popular and had similar topics and narrative structure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views of modern audiences on education. So,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comments using text mining showed that although the two dramas had similar topics and narrative structures, the audiences had different views on the educational issues in these dramas. In particular, the former was considered by the audiences as a drama that made us think twice about the educational issues of our society, while the latter was not. In addition, this difference between the views of the audiences on the two dramas was consider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central event in these dramas. Generally, the central event or central conflict being timely and empathizing with the situation or psychology of the main characters forms a healthy forum for the audiences to aim for improvement and reform in relation to various issues in society. For example, paying attention to the regular/frequent college entrance system shows that modern Korean TV audiences have a very high societal tendency and especially an interest in fairness in relation to educational issues. So, this research confirmed that modern audiences were transforming from being passive in accepting messages to actively forming messages by reading the gap in the contents of the dramas.

**Keywords** : Comments, Big Data, LDA, Cultural Research, Habitus, Cyber-public Opinion Field

\*Corresponding Author : Kyung-Ae Kim(Mokwon Univ.)

email: minerbakorea@mokwon.ac.kr

Received July 11, 2022

Accepted September 2, 2022

Revised September 1, 2022

Published September 30,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문학 혹은 예술의 생산과 수용은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이념적 인식과 밀접적으로 관련된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예술이 하나의 놀이이자 사회적 행위이며, 작품 생산자와 유통자, 비평가, 수용자를 모두 포함하는 ‘장’ 속에 유희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의 ‘심각한 유희’로 즐겨지는 과정에서 예술작품은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놀이로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1].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비평 놀이’ 혹은 ‘읽기 놀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예술 생산과 수용에 대한 부르디외의 생각은 그가 주로 분석 대상으로 삼은 19세기 예술작품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용자의 해석 활동이 능동적으로 펼쳐지는 현대적 양상을 설명하는 데 더 적확히 들어맞는다. 가령, 예술의 ‘장(champ)’ 개념은 예술이란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밀접적으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콘텐츠 수용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소통에 참여하는 가상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Talk’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TV’ 플랫폼이다. 네이버 TV 플랫폼에서는 콘텐츠 실수용자를 중심으로 인물과 장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등 정서의 교환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소통은 대체로 댓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댓글에는 수용자들의 계급적, 미학적, 소비적 성향이 잘 드러나 있다. 부르디외의 용어로 말한다면, 작품에 대한 지각, 평가 등의 성향 체계로서 사람들의 정신구조 속에 내재화된 ‘아비투스(habitus)’가 잘 드러난다. 아비투스는 지속적인 성향들의 체계로 육체 속에 체화된 구조를 뜻한다[2]. 아비투스는 현대 수용자들의 의식 수준과 취향 등 계급적이고 미학적인 성향을 말해주는 동시에, 이러한 성향이 보편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해준다.

부르디외는 특정한 장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 및 전략적 실천들이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생산자에 의해 수행되기도 하지만, 작품의 현실을 실제 현실과 유비하여 이해하고 현실 비판에까지 나아가는 놀이 수행자들에 의해서도 수행된다. 수용자들의 아비투스는 그들이 작품에 대해, 혹은 다른 수용자의 의견에 대해 다양한 의도로 제기하는 언술에

잘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콘텐츠 시청후기로 달리는 댓글을 분석하면 현대 수용자 인식의 저변, 곧 사회적 아비투스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1.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문화 연구에서 댓글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기존에도 콘텐츠 수용자의 반응진술을 중심으로 수용자의 특성을 살피려는 연구가 있어 왔다[2,3]. 그러나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상이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로 한정되어 있어 텍스트에 집중하여 수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TV 실수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댓글이야말로 중요한 대상일 수 있는데, 그 양이 방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면 다루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있었다.

현재까지 빅데이터 분석법은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과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기법이 주로 쓰여왔다. 감성분석은 글을 작성한 사람들의 의견, 성향 등의 주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분석하는 기술로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이라고도 하며 현대에도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주제가 무엇인지 추출하기보다, ‘불륜’에 대해 분석한다면 ‘부정’이라는 의견을 추출하는 식으로 그 주제에 대해 수용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긍정/중립/부정’ 등으로 매우 단순화하여 표현하여 단순화된 감정 이상의 것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수용자 아비투스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문화 연구의 경우 명확한 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노정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감성분석 대신 잠재 디리클레 할당기법(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을 쓰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미 두 편의 연구논문을 통해 이 연구방법의 효용성을 증명한 바 있다[4,5]. LDA는 일종의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이다. 토픽 모델링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데이터를 군집으로 처리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항목으로 그룹을 찾아내는 방식을 말한다. LDA에서는 여러 단어가 섞여 토픽을 이루고, 여러 토픽이 섞여 문서를 이룬다고 본다. 따라서 자연 언어의 전형적인 사용 방식을 반영하여 문서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기보다 각 문서의 내용을 서로 ‘겹치게(overlap)’ 인식한다.

LDA는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를 서술하는 확률적 토픽 모델링 기법의 하나로서, 미리 알고 있는 주제별 단어수 분포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서에서 단

어수 분포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가 어떤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을지 예측하게 해준다. LDA에는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단어의 교환성(exchangeability)이다. 이를 ‘단어 주머니(bag of word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교환성은 단어들의 순서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단어들의 유무만이 중요하다는 가정이다. 예를 들어, ‘Apple is red’와 ‘Red is apple’ 간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단어의 순서를 무시할 경우 문헌은 단순히 그 안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빈도수만을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이 가정을 기반으로 단어와 문서들의 교환성을 포함하는 혼합 모형을 제시한 것이 바로 LDA이다. 하지만 단순히 단어 하나를 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어들의 묶음을 한 단위로 생각하는 방식(n-gram)으로 LDA의 교환성 가정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위키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이 글에서는 수용자들의 감정과 미의식이 표출되는 언술을 반응진술(response statement)[5]로 보고 이에 주목하여 논의를 펼칠 것인데, 네이버 TV ‘Talk’ 게시판 댓글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LDA를 적용해보려고 한다. 주된 연구대상은 JTBC에서 2018.11.23.~2019.02.01.에 총20회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SBS에서 2021.06.04.~2021.09.10.에 시즌1~시즌3까지 총 41회 방영된 〈펜트하우스〉 댓글들이다.

이 두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첫째, 이 두 작품의 제재 혹은 서사구조가 유사하여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은 대한민국의 최고상류층이 거주한다는 특정 주거지역 - 전자의 경우 캐슬, 후자의 경우 헤라팰리스 - 을 중심으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심사건과 결말은 각기 다르지만 유사한 인물 구조와 전개 방식을 지니고 있어 현대인의 욕망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지 살피기에 적절한 연구대상이다.

둘째, 드라마가 지닌 화제성 때문이다. 〈스카이캐슬〉은 방영기간 동안 “한국 사회 계급 재생산의 핵심 기제인 교육과 대학입시 문제에 대한 매우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공론을 뜨겁게 활성화했다”[6]고 평가된다. 아울러 ‘입시 코드’, ‘정시/수시’ 등의 입시제도, ‘사교육’ 등 수많은 화제를 생성했으며, 인터넷에서 이런 화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펜트하우스〉 역시 ‘헤라팰리스’라는 특별한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빈부격차, 입시경쟁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동산, 갑질 등 최근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루어”[7]

높은 화제성을 기록했다.

셋째, 두 작품이 비교적 긴 기간 상영되어 많은 댓글이 축적되어 있어 빅데이터 분석 자료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은 드라마에서 다루는 제재에 대해 수용자들의 관심이 높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청률을 살펴보면, 〈스카이캐슬〉의 경우 시즌1 23.8%, 〈펜트하우스〉의 경우 시즌1 19.5%, 시즌2 29.2%, 시즌3 19.5%의 최고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닐슨코리아 제공). 특히 〈스카이캐슬〉은 종편 드라마로서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 1.3 연구목표

TV 드라마는 대중의 욕망과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가장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매체이므로, 특정 항목에 대한 수용자 인식을 직접적으로 살피기에 용이한 대상이다. 아울러 TV 드라마 수용자의 이념과 행동양식을 밝히는 일은 역으로 콘텐츠의 관습과 이념, 나아가 그 문화의 속성과 의미를 밝히는 길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작품의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회차별로 변화하는 수용자들의 관심과 토픽의 변화에 대해 살피고, 이 작품들의 주요한 제재였던 입시제도와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 수용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이념성을 지니고 있는지 밝히는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향 체계로서 수용자의 아비투스를 읽어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이 촉발하는 수용자의 미의식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최근 문화심리학의 계보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8-10]. 연구의 전체적 틀은 수용이론에 기반하되,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워드 클라우드, 잠재 디리클레 할당기법 등 빅데이터 분석법을 활용할 것이다.

## 2. 빈도수를 활용한 아비투스 분석

수용자들 간에 어떤 주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스카이캐슬〉의 경우 2021.03.29. ~ 2021.03.30., 〈펜트하우스〉의 경우 2021.10.17. ~ 2021.10.18.의 기간을 기준으로 네이버 TV ‘talk’ 게시판의 댓글을 수합하였다. 전자의 경우 댓글 수는 총 74,716건이었고, 후자의 경우 총219,439건이었다. 수집 결과 〈펜트하우스〉가 〈스카이캐슬〉보다 3배 정도 댓글 수가 많았는데, 〈펜트하우스〉가 시즌1~3으로 시즌제를 채택하여 방송하고, 방송 분량도 2배 이상 많은 데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Talk 게시판에서 수집한 〈스카이캐슬〉과 〈펜트하우스〉의 댓글을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것이다.



Fig. 1. Word cloud for 〈Sky Castle〉 and 〈Penthouse〉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두 작품은 제재 혹은 서사 구조가 매우 유사한 작품이다. 그런데 많이 언급된 단어의 빈도수를 비교하면 Fig. 1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뚜렷이 대별되는 양상이 발견된다. 〈스카이캐슬〉의 경우, ‘혜나’ 9513건, ‘우주’ 8978건, ‘예서’ 8016건 등으로 빈도수 1, 2, 3위에 오른 단어가 모두 작품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이름이었다. 반면 〈펜트하우스〉의 경우, ‘심수련’ 23713건, ‘주단태’ 21946건, ‘오윤희’ 21259건, ‘천서진’ 17738건 등으로 1~4위에 오른 단어가 모두 작품에 등장하는 어른들의 이름이었다. 5위 ‘배로나’(16637건), 8위 ‘하은별’(12978건), 9위 ‘주석경’(11150건), 11위 ‘주석훈’(9096건) 등 아이들의 이름이 없지 않으나, 〈스카이캐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은 작품의 주된 갈등구조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스카이캐슬〉의 경우 신아고에 재학중인 ‘혜나, 우주, 예서, 서준, 기준’ 등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서울의대에 입학시켜 계층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욕망과 이에 의해 희생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중심사건을 이룬다. 따라서 기성세대의 욕망에 희생되는 아이들과 교육 문제가 작품에 전경화되어 있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경우 최상위층이 거주한다는 ‘헤라팰리스’라는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거나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어른들의 상승 욕망과 애욕이 중심사건을 이룬다. 따라서 교육 등 아이들의 문제는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욕망에 귀속된 부차적인 것이나 피상적인 것으로 다뤄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작품이 ‘교육’, ‘입시’ 등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및 시각도 매우 달랐는데, 수용자의 반응진술에 이 점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은 ‘교육’과 ‘입시’라는 키워드로 수집한 댓글 중 일부를 예시한 것이다.

#### 〈스카이캐슬〉

한국교육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드라마.

학종 부작용을 폭로하는 드라마. 수능세대였던 나 때는 수능, 입시지옥, 조기유학에 관한 다큐와 드라마가 줄을 이었다. 수능 100프로가 정답인 듯. 하지만 수능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교 공부만 뒷전이고 교과서 대신 수험서로 수업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었고 학교에선 자도 학원, 과외는 불을 키고 맹신하고 야자는 필수고 0교시 문제도 수능비중이 클 때 애기였지. 물론 학종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다. 학종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시제도와 그 흐름이 흡사하다.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포토 폴리오 채우기 등등) 사립 명문 고등학교 진학이 필수가 되어버려 교육 빈부격차가 공고한 미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채 들여온 학종, 입학사정관 제도는 수험시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그 답이 수능100프로일까.

수능만 100% 보는 것도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지만.. 내 신성적 입시에 반영하고 내신성적 만으로 대학가는 1차 수시는.. 엄청난 비리를 만든다...

부모 교육용 드라마다 ㄹㅇ 자녀의 미래는 자녀가 선택하도록 해야 하고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할 때 그 기준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게 부모임.

단순히 보고 즐기지만 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방식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교훈 있는 드라마... □□ 18년 마지막과 19년 시작을 스캐와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진짜 최근 졸업생으로써 대한민국 입시 징하다 징해.. 아니 도대체 나 졸업하고 12년 만에 고등학교 입시에 무슨 변화가 생겼길래 이런?

#### 〈펜트하우스〉

학교가 망가졌거니로니 공교육을 개편으로 만들어 버리네 이런 드라마는 안본다.

주단태의 교육방식이 지금의 부모들이 본받아야할 교육

방식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단태가 저런 난폭한 방식으로 교육하겠습니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니까 저렇게 해야 자식이 강하게 자랍니다. 주단태처럼 자식을 교육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식은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주단태처럼 강하게 난폭하게 교육하는 방식은 결코 나쁜행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강하게 난폭하게 교육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강해집니다!!!!!!!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등등 온갖 것들을 짬뽕해놓은 막장드라마... 뭔가 올림도 없고 감흥없고 자극적이기만 함... 넘 과하다 과해... 중학생아이들이 저러나... 아무리 아이가 거짓말하고 사기쳤다 해도 어른이 아이를 발로 밟고... 부자들도 아이 인성교육 얼마나 신경쓰는데... 넘 오바다 오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이 닮는다고 부모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네요.

자식교육 개판으로하네~ 그래봤자 조선땅위의 노예민족 조센징들일뿐.

본인이 그렇게 몰아부쳐졌으면서 딸한테 똑같이... 진짜 가정교육은 콩 심은 데 콩 난다.

천서진도 불쌍하다 부모들이 교육을 저따구로 했으니가 애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석경이는 성격 저따구인거 이해감. 부자라 지 하고싶은 거 다해 버릇없음 + 아빠 한테 학대 까지 받아 인성이 제대로 성립될수가 없음 + 학대 받고 자라 폭력이 나쁜 건지 모름+ 애비가 교육을 남 짓밟고 최고 되라고 세뇌 안하면 학대 + 본래 천성이 지 애비처럼 더러운데 머리까지 나쁜. 지 애비 꼭 빼 닮았지만 머리가 나빠서 더 상황판단이 안됨

스카이캐슬과 같은 건 그저 입시경쟁 이것밖에 뭐 입시 경쟁 소재는 펜트는 음악 스캐는 공부쪽이지만 어쨌든 분위기며 장르며 다 다른데 뭐가 같다는 건지. 진짜 대가리 깨진애들인지 스캐는 땅에서 혈투 펜트는 하늘에서 혈투.

드라마 시대가 언제인 거죠? 도무지 고등학교 입학이라도 현재에 있을 수 도없는 입시부정에 입학곡도 모르고 시험을 보다니... 말이 안되서 짜증나고 부자 애들은 다 나쁜 인성에 양아치들이고.

댓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교적 많은 댓글을 예시하였다. 예시한 댓글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작품 모두 교육과 입시에 관한 반응진술이 매우 많았다. 그런데 두 드라마 수용자들의 발화맥락이 매우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스카이캐슬〉의 경우, 수용자들은 한국의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등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맥락에서 주로 발

화했다. 반면, 〈펜트하우스〉의 경우, 가정교육이나 부모들의 처신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주로 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용자들은 〈스카이캐슬〉을 ‘한국교육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드라마’로 인식하고 ‘우리나라 교육방식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교훈 있는 드라마’로 평가했지만, 〈펜트하우스〉에서 이런 평가는 찾을 수 없었다. 후자에서 교육 문제가 주변적, 피상적으로 다루어진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서진이나 차민혁이 자식 교육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과한 행위를 일삼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카이캐슬〉 수용자들은 오히려 작품 안의 부모들에 공감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렇게 행위해야 하는 ‘한국교육이 슬프고 비통하다’는 공감적 맥락의 발화가 많았다는 점이 이 점을 증명한다. 그러나 〈펜트하우스〉에서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이 닮는다고. 부모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네요.’, ‘진짜 가정교육은 콩 심은 데 콩 난다.’ 등의 비판적 맥락의 발화가 많았다. 〈펜트하우스〉가 교육 문제를 어른들의 잘못된 행위나 욕망을 드러내는 수단, 소재의 하나로 사용한 결과일 것이다.

한편, 두 드라마가 부모와 자식의 갈등을 공통적으로 형상화하기 때문에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문제에 관련된 반응진술은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두 편 모두에서 공론장을 형성했던 문제는 ‘정시/수시’의 대립이었다.

#### 〈스카이캐슬〉

입시코디가 있어야 하는 현 한국교육이 슬프고 비통하네요.

이 드라마에 나온 내용보다 현실이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는 말할 놈의 학종.....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봤자 정보가 넘쳐나고 대필까지 해주는 수도권 돈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 도입 사상 이래 최대 비율인 77%를 수시로 뽑겠다고 하니 올해 수험생인 전 그냥 막막하고 울분 터집니다. 어휴.....

수시를 없애면 다 해결됩니다. 예라이.

우리도 있었음. 벌써 15년 전 얘기지만 일반고 그것도 공립고등학교, 지역에서 명문이라 불리는 학교였음. 특별반같은 이름은 없었지만 일요일마다 암암리에 학생들을 모으고 수학경시대회 모의고사 본다면서 내신 시험 문제 미리 문제 다 풀어보게 하고 출제위원인 수학선생님이 풀이까지 다 해줌. 수시에 유리한 공모전 미리 공개해서 준비할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고 나서 전체공개. 교내대회는 말할 것도 없음.

절대 있을 수 없다. 학종때문에 아무리 스럽아도 빌빌기고 부탁해야함.... 저렇게 대단단건 정시로 가겠단거지 뭐.

또 지금은 정시 100%가 아니므로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점수가 대학교 가는데 중요하므로 뒤통.

저러면 수시 못 받아서 저릴 수가 없음... 선생한테 한마디 하고 정시로 돌리면 ㄹㅇ 피눈물 흘린다.

타지역 외고 나오긴 했는데 대치동 출신으로 진짜 부모님한테 처맞고 욕먹고 사육 당했는데도 학종으로 서울대 떨어지고 자살하고 싶었는데 옆에서 위로는 못해주고 진짜 000 취급 하더라. 나도 분노와 열등감이 트리거가 되어서 미친듯이 해가지고 결국 정시로 들어오긴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되고 존나 정신병 걸릴뻔 함. 걸려 있는 상태 일수도 있고 ㅋㅋ 아무튼 저거 작가가 대치동 디테일이나 경제감각 없는거 빼고 거의 대치+반포동의 하루다 ㅋㅋ.

아니 애초에 정시로 대학 가면 되는데 왜 수시 간다고 자소서니 포트폴리오니 코디네이터니 돈GR을 하는거지.

수능 100퍼쵸 하자.. 저건 빙산의 일각일듯 우리나라 입시는 결국 대물림용으로 쓰이는 쓰레기장일뿐. 정말 진심의 교육파인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입시제도에 진짜 큰 문제가있는듯 정시80%로가자 수시못민겠다.

#### 〈펜트하우스〉

그깟 고등학교 학예회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펙으로 서울대 갈 수 있어서 그 난리치는거 아님? 수능으로는 절대 서울대 못 가는 애들이 엄빠찬스로 학종 수시 그런 걸로 좋은 대학 들어가는거 작가가 비교는건줄 알았는데?

ㅋㅋㅋㅋㅋㅋ 개웃기누 서울대 성악과 올해부터 올정시입니다~. 그래서 내신 안들어가고 생기부 안봐요. 공부는 수능만 들어갑니다. 1차에서 실기 백이고 2차에서 수능이랑 실기만 봐요. 한예종만 유일하게 수시여서 내신 10 봐요. 예종은 거의 내신 조금 챙기고 실기만 챙겨도 되고 서울에 있는 대부분 성악과는 올정시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하윤철 지 딸 위해서 비리를 저지른건데 스카이크슬이나 펜트하우스나 우리나라 수시 전형 입시의 비리 문제점 잘 꼬집은거임. 수시 내신은 학교마다 수준 차이 심하기 때문에 불공평한데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처럼 내신에서도 비리 발생 충분히 가능하고. 비리가 넘치는 수시 학종이 저런 수상이니 뭐니 각종 스펙쌓기와 학생부 세특 같은 주관적인 걸로 뽑으니까 비리 발생 많이 하는 거임. 과고, 영재고는 수시가 적합한데 일반고는

수능으로 줄 세우기가 제일 공정하고 깔끔. 최상위 학교 가려면 변별력 시험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자꾸 고교 학점제니 뭐니 뜬구름 잡는걸로 수능 정시 건드리려는 현실이 펜트하우스 드라마보다 더 막장.

이래서 수시를 없애야 함.

예시를 살피면,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수용자들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수시 전형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이는 "열심히 공부만 해서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고교학점제니 뭐니 뜬구름 잡는 걸로 수능 정시 건드리려는 현실이 펜트하우스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라는 비판도 있다. 수시 입시제도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맥락인데, 같은 맥락에서 일부 수용자는 '정시'를 80%~10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드라마의 서사구조가 부모 자식의 갈등을 다루게 됨에 따라 교육이 가장 큰 갈등요소로 부상하고, 이를 비판삼아 정시/수시에 대한 사이버 공론장이 형성된 것이다.

예술의 장은 게임의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고 그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또한 수용자들은 읽기 놀이를 즐기고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아버투스가 낳은 가치관 싸움 혹은 이념 투쟁을 벌이게 된다. 남미자 등은 〈스카이크슬〉 드라마 방영 이후 더욱 가속화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시비의 원인을 "교육이 방향을 상실한 시점에서 교육은 단지 '사다리 오르기' 게임으로 전락하기 쉬우며,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규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1]. 2018년에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등으로 내신성적에 대한 신뢰감이 땅에 떨어지자 교육의 결과를 측정하는 시험에 대한 공정성에 집단적으로 집착하게 된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용자들은 단일한 아버투스만 나타내지 않았는데, 많은 수용자들이 정시가 더 공정하거나 낫다고 여긴 반면 정시도 공정하지 않다는 반응진술을 내놓은 수용자들도 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사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내신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학원선생이 아니라 학교 선생이기 때문이다. 학교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전형이 학종전형이다. 따라서 오히려 학교수업에 충실하기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논리가 구시대적인 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려 부활하고

있다. 저런 입시 코디네이터가 입시에 조력한다고 해도 실제 내신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교 교사다. 반면 수능전형은? 출제자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교육 강사가 절대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고액과외가 엄청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학종전형보다 수능전형이 더 불공정할 수 있다.

학종이 교육평등을 강화한다. 지방 고교 저소득층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하기만 하면 서울대 연고대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입시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학종전형의 정착 덕분에 지역 간 교육격차와 수능에 의한 획일적인 평가방식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병폐들(사교육 성행, 공교육 고사 및 교권추락에 따른 학생의 학업 윤리적 아노미 등)이 점진적으로 일소되고 있는 현재 추세에서 도리어 정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는 구태로의 회귀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제발 수능이 공정하다는 말은 하지말자. 수능도 진짜 강남애들이 다 가져간다. 나머지 지역은 자사고 빼고는 스카이 정시로 거의 못간다. 그나마 수시가 강남애들 가고 남은 부분 다른 애들이 가지 정시는 진짜 거의 다 자사고 외고 과고 강남지역 애들이 간다.

인용을 살펴보면, 일부 수용자들은 오히려 “학종이 정시보다 교육평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제발 수능이 공정하다는 말은 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하고, “사교육 고액과외가 엄청난 효과를 창출”하기에 “학종전형보다 수능전형이 더 불공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작품의 결말이 유도한 주제와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스카이캐슬〉의 경우 주요 인물인 예서가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대학입시를 치르기로 결심하면서 별려놓았던 갈등을 급히 봉합해버린다. 그런데 수용자들이 그 빈틈을 읽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한국교육의 모순적 상황을 적확히 포착해낸 것이다. 곧, 작품은 ‘정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쉽게 기존의 이념에 편승해 버렸지만, 일부 수용자들은 작품의 의미에서 이탈하여 그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념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플랜이 논의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다중이 지닌 건강한 운동성이라고 보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 경쟁이라면 그것이 수시든 정시든 예상되는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이클 샌델은 대학입시에서 보편 원리로서 공정이 작동하려면, 개인의 성공 또는 실패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성’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는 역설적인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하다. 샌델의 주장은 소위 ‘능력주의’라는 자체가 이상이며 허구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12]. 정시 옹호든 비판이든 댓글에 드러난 수용자의 인식은 작품의 기대지평을 적확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위반하거나 넘어서서 교육현실을 적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TV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상업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서사가 현실을 적절히 그려내어 수용자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수용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져 대중성을 위반하는 기묘한 계몽성이 형성되기도 한다.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대중성을 바탕으로 하며 상업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매체이기는 해도 중심사건이나 중심 갈등이 시의적절하고 주요 인물의 상황이나 심리에 공감하게 되어 개선과 개혁을 목표로 하는 건강한 공론의 장이 형성된 결과이다.

〈스카이캐슬〉의 경우, 수용자들 역시 같은 사회구조를 힘겹게 견디고 있다는 공통분모가 빠르게 형성되어 갔기 때문에 시작 당시 1%대에 불과하던 시청률이 마지막에는 20%를 상회하고, 종편 드라마 역대 1위, 비지상파 드라마 1위, 5주 연속 드라마 화제성 1위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일종의 메타적 비평의 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TV 텍스트 수용자들이 수동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던 존재에서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체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 3. LDA를 활용한 토픽 분석

댓글 분석에서 빈도수 외에 주목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주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가일 것이다. 수용자들이 어떤 주제의 댓글을 많이 달았는가를 살피기 위해 토픽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드라마 〈스카이캐슬〉 댓글에 쓰인 단어의 연관성을 LDA로 분석한 결과이다.

Fig. 2에서 알릴 수 있듯이, 〈스카이캐슬〉에서는 주로 3가지 토픽이 뚜렷한 양상을 나타냈다. 토픽1(x1)은 2-4 회차까지 등장하다가 7회부터 본격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여 14회차까지 많은 비중으로 논의된다. 토픽1은 ‘드라마-이수임-한서진-염정아-캐릭터-김주영-사람들-김서형-거짓말’ 등의 단어 조합으로 판단할 때, ‘스토리 혹은 서술 지향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토픽1이 집중된 8-10회차는 자살한 이명주의 남편 박수창



이 김주영에게 업종을 들이대며 절규하고, 한서진과 이수임의 갈등이 심화되며, 강준상의 숨겨진 딸 김혜나가 강준상의 집에 들어가는 등의 스토리가 전개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서진으로 대표되는 결과(성적)지상주의와 이수임으로 대표되는 과정중심주의의 충돌이 주된 흐름을 이루는데, 수용자들도 이에 관련된 반응진술들을 쏟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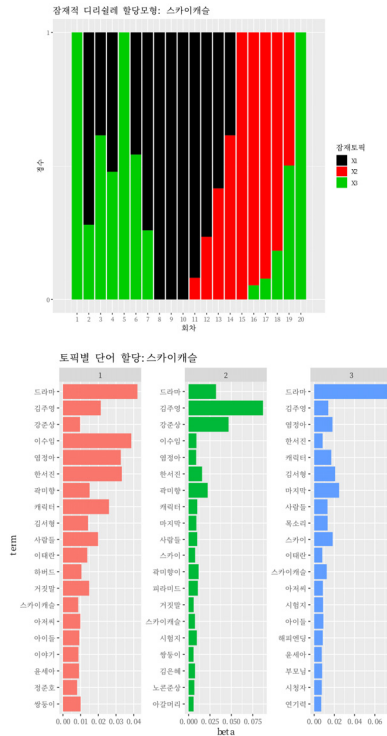


Fig. 2. LDA for <Sky Castle>

토픽2(x2)는 11회차부터 시작하여 19회차까지 많이 나타나는데, ‘김주영-강준상-드라마-광미향-한서진-시험지-피라미드-스카이캐슬’ 등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 ‘교육 지향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회차들에서는 강예서와 김혜나의 갈등이 심화되고 강준상이 한서진과 다른 입장에 서게 되면서 교육 문제를 중심에 두고 두 사람의 갈등이 전면화된다. 한편 김주영의 과거도 드러나는데, 그녀가 K의 엄마로서 자신의 인생을 대리할 딸을 꿈꾸다가 좌절을 겪었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잘못된 복수를 꿈꾸었던 인물이었음이 폭로된다. 신아고의 시험지 유출 사건, 계층상승으로 대표되는 차민혁의 ‘피라미드’, 다른 계층 사람은 범접할 수 없다는 그들만의 성체 ‘스카이캐슬’ 등이 이 주제에 속한

주요 단어들이다. 따라서 이 주제는 학벌 중심의 사회적 모순과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린 한국의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토픽3(x3)는 서사의 처음과 마지막, 특히 1회와 20회에 집중되어 있는데, ‘드라마-염정아-김서형-김주영-캐릭터-스카이-스카이캐슬’ 등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 캐릭터 및 배우의 연기력 등에 대해 논급하는 ‘드라마 지향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시청자-연기력’ 등의 단어가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종합하면 〈스카이캐슬〉에서 주로 논의된 주제는 스토리와 서술, 교육, 드라마 지향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작품 관련(스토리와 서술, 드라마 지향) 주제 외에 전반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교육 지향 주제라는 점은, 이 드라마가 한국의 교육 현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를 심도 있게 비판한 드라마임을 알게 한다.

한편, 〈펜트하우스〉는 〈스카이캐슬〉과 달리 뚜렷하게 주제가 분기되지 않았다. 서사구조를 통해 주제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엮히고 설킨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주제를 생산하는 작품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언급 수가 많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필터링 과정을 거친 결과 4가지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Fig. 3. LDA for <Penthouse>

먼저 토픽1(x1)은 ‘천서진-김소연-드라마’의 압도적 빈도수로 이루어, ‘악녀 천서진의 악행 및 인물 지향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주제는 1~15회차까지 집중적



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작품이 김소연의 신들린 연기와 화려한 의상 등으로 화제몰이를 시작했고, 작품에서 ‘김소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면 그녀가 연기한 ‘천서진’ 관련 언급이 가장 높은 점이 이점을 증명한다. 김소연은 〈펜트하우스〉로 2021 SBS 연기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토픽2(x2)는 ‘오윤희-심수련-주단태-천서진’의 높은 빈도수로 미루어, 민설아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순간의 기억을 잃은 오윤희와 심수련이 연합하여 민설아 살인범을 찾는 ‘스토리 혹은 서술 지향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주단태’, ‘천서진’에 이어 ‘로건 리’의 비중이 높은 점, 다른 토픽에 비해 ‘하윤철’의 빈도가 매우 낮은 점이 이점을 증명한다. 하윤철은 민설아 살해사건에 개입하거나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픽2는 16~32회차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토픽3(x3)은 ‘하윤철-천서진-하은별’의 빈도수가 매우 높은 점으로 미루어 빛나간 교육열과 빛나간 애정이 이룩한 ‘가정파탄 지향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주제는 시즌2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토픽에서는 ‘하윤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하윤철이 가정을 깬 천서진에 대한 복수심으로 오윤희와 위장결혼을 하고 배로나의 친부임이 드러나는 것이 시즌2의 주요 내용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한다. 한편 ‘심수련’의 비중이 다른 토픽에 비해 매우 낮는데, 가정 문제에 관한 한 심수련이 드라마 상에서 가장 긍정적 징표를 지닌 인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파탄에 이른 인물이 하윤철과 천서진만은 아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펜트하우스〉의 주제가 뚜렷이 분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제는 다음 주제인 ‘신분상승 및 애육 관련 주제’와 많은 부분 뒤섞이는 양상을 나타낸다.

토픽4(x4)는 ‘주단태-천서진-심수련-오윤희’의 연결 조합과 빈도수로 미루어 ‘신분상승 및 애육 관련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주제는 시즌3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단태는 신분상승과 애육의 화신이라고 해도 좋을 인물이다. 천서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버지도 죽인 인물이며, 오윤희 역시 신분상승을 위해 민설아를 죽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주제에서 ‘주석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이 주제가 신분상승 및 애육 중심임을 증명한다. 주석경은 아이들 중 가장 신분상승에 대한 강한 욕망을 지닌 인물인데, 그녀는 서울음대에 가려는 욕망으로 친구에게 칼을 찌는 차갑고 잔인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인물의 욕망이 살인이나 술수, 음모 등으로 실현되는 점은 이 드라마의 장르가 소위 ‘막장’적 구조를 지녔음을 실감케 한다. 이러한 성격을 가장 많이

나타낸 것이 시즌3이다.

요컨대, 〈펜트하우스〉에서 논의된 주제는 ‘악녀의 악행, 살인사건 범인 찾기, 가정파탄, 신분상승 및 애육’ 등이다. 교육 문제를 전경화시킨 〈스카이캐슬〉과는 논의된 주제의 양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수용자들은 각 주제에 관련한 비판과 비난의 반응진술을 많이 쏟아냈는데, 소위 ‘막장’적 전개방식의 특성상 작품이 의도한 테두리 안의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시즌제로 이루어져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흡입력 있는 갈등이 요구되었고, 주인공이 지적했듯이 소위 ‘이벤트 보기’ 중심으로 서사를 이끌어간 점과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7].

그런데 이러한 대중적 관심과는 별개로 결말 양상에 관련해서는 의외의 양상도 발견된다. 〈스카이캐슬〉의 경우 황우주의 가족이 캐슬을 떠나고 황우주가 살던 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오면서 서사가 마무리된다. 강에서의 가족은 캐슬을 떠나지 않으나 여서가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정시가 공평한 입시제도라는 이념이 강화된다. 반면, 〈펜트하우스〉의 경우 부모들이 대부분 죽거나 구속되고 상위 1%가 거주한다고 하는 헤라펠리스 자체도 붕괴시켜 버리는데,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이념을 뒤엎는다.

‘가족’과 ‘학벌’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개인적, 집단적 상징 자본이며 부로 인한 양극화가 그것을 부추기는 주된 기제라고 할 때, 〈펜트하우스〉는 그 붕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셈이다. 소위 ‘막장’적인 전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결말에 있어서는 전복적 의도를 지녔음이 주목된다. 결말 양상만 놓고 볼 때, 〈스카이캐슬〉이 ‘가족’과 ‘정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서사의 결말을 급작스럽게 행복하게 현실에 합일시켜 버린 반면, 〈펜트하우스〉에서는 ‘가족’을 파괴하여 아이들을 부모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역으로 오히려 ‘학종’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령, 배로나는 오윤희의 사망으로 고아가 되며, 하은별은 하윤철의 사망과 천서진의 구속으로 고아와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주석훈 주석경도 주단태의 구속과 심수련의 사망으로 고아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된다. 텍스트 안에서 이들의 성공을 돕는 것은 로건 리 등이 주도하는 공공재단의 힘이다. 간단히 말해서 결과적으로 전자는 사교육을, 후자는 공교육을 옹호한 것이 된다.

이러한 양상은 수용자들의 행위양상을 통해서도 일부 실체가 드러난다. 〈스카이캐슬〉은 드라마가 그려낸 한국 사회의 이질적 국면이 그 그럴듯함으로 인해 많은 수용

자들을 공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 가운데 10명 중 한 명은 ‘입시코디’에 대해 실제로 알아보았고 수용자 문답 결과 한서진이 입은 옷과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려고 문의했다고 응답하는 등 표리부동한 면모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펜트하우스〉의 경우 수용자들은 “학교가 망가졌거니로니 공교육을 개편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주요 인물들이 성격적으로 파탄된 인물로 그려지거나 서사 안에서 징벌되어 수용자가 인물과 거리두기가 수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드라마 모두 화려하고 다채로운 인테리어, 패션 등에서도 술한 화제성을 낳았지만, 한쪽은 수용자의 모방욕망을 자극한 반면, 다른 한쪽은 거리두기에 성공한 셈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면, 소위 막장이라고 비판받은 후자, 곧 〈펜트하우스〉가 오히려 전복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가족 구조에 주목해 보아도 비슷한 결론이 성립한다. 〈스카이크슬〉의 경우 호화로운 저택이 모여있는 ‘캐슬’이라는 성채에 살면서 조주인이 ‘기획된 가족’, 천정환이 ‘가족 신자유주의’라고 지칭했던 가족 형태를 보여준다. 새로운 가족 형태란 핵가족 형태로서 남편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아내인 전업주부가 자식의 생산, 양육, 교육을 도맡는 형태의 가족 형태를 말한다. 이때 가족은 “새로운 무한경쟁의 기획 및 전술의 단위이며, 부부는 일종의 경제적 동맹자”[6]로 기능한다.

반면 〈펜트하우스〉의 가족 형태는 매우 다채롭다. 〈펜트하우스〉에는 오윤희의 가족처럼 한부모 가정도 존재하고,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는 민설아같은 인물도 존재한다. 한편, 이 드라마에서 전업주부로 그려진 여성은 ‘고상아’ 외에는 거의 없다. 심수련과 천서진은 CEO와 재단 이사장 등 경제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오윤희도 부동산개업에 종사하는 전문직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런 맥락에서 자녀교육은 예술전문 학교인 청화예고에 일임되어 있다. 문제 많은 사립예술 명문으로 묘사되긴 했지만, 공교육을 입시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스카이크슬〉과는 그 결이 미세하게 다르다.

〈스카이크슬〉은 상류사회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그려내어 수용자가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에는 공명하게 했음에도 상류사회를 향한 모방 욕망도 아울러 지니게 만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수용자들이 입시 등의 문제에 있어서 상류사회에 대한 모방의 욕망을 드러내는 등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막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기는 했으나 〈펜트하우스〉는 헤라펠리스의 붕괴와 새로운 가족 서사를 창출하는 등 전복적 성격을 보여준다. 작

품의 주제적 국면과는 어긋난 결과이지만, 서술 국면에 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이 글에서는 〈스카이크슬〉과 〈펜트하우스〉라는 화제성이 높고 제재 혹은 서사구조가 유사한 두 작품을 중심으로 인물 구조와 갈등 양상에 따라 변화하는 수용자의 아비투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용자들의 감정과 미의식이 표출되는 언술을 반응진술로 보고 이에 주목하였으며, 네이버 ‘Talk’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을 워드 클라우드 등의 텍스트마이닝과 LD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두 작품을 살핀 결과, 유사한 제재와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수용자들이 두 작품에서 교육 문제를 매우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은 전자를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드라마로 평가한 반면 후자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중심사건과 긴밀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에서 아이들을 서울의대에 입학시켜 계층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욕망과 이에 의해 희생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중심사건 이룬 반면, 후자는 ‘헤라펠리스’라는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거나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어른들의 상승 욕망과 애육이 중심사건을 이루기 때문이다.

수용자들의 사이버 공론의 장을 들여다본 결과, 서사가 현실을 적절히 그려내어 수용자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수용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질 때 대중성을 중심으로 개선과 개혁을 목표로 하는 건강한 공론의 장이 형성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시/수시 논쟁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한국 현대 TV 텍스트 수용자들은 대사회적 성향이 매우 높고, 특히 공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수용자들의 논쟁 기저에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구현하고 싶다는 욕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수용자들이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존재에서 작품의 빈틈을 읽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형성하는 주체로 변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DA를 중심으로 두 작품을 살핀 결과, 〈스카이크슬〉에서는 스토리와 서술, 교육, 드라마 지향의 세 가지로 주제가 유의미함을 살필 수 있었다. 작품 관련 주제 외에 전면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교육 지향 주제라는 점은, 이

드라마가 한국의 교육 현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를 심도 있게 비판한 드라마임을 알게 한다. 한편, <펜트하우스>는 주제가 잘 분기되지 않았는데, 서사구조를 통해 주제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얹히고 설킨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주제를 생산하는 작품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급 수가 많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필터링 과정을 거친 결과 악녀의 악행, 살인사건 범인 찾기, 가정파탄, 신분상승 및 애욕의 4가지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교육 문제를 전경화시킨 <스카이캐슬>과는 논의된 주제의 양상이 완전히 달랐다.

한편, <스카이캐슬>은 상류사회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그려내어 수용자가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에는 공명하게 했음에도 일부 수용자들이 상류사회를 향한 모방 욕망을 나타내게 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반면 <펜트하우스>는 그렇지 않았는데, 후자가 헤라클레스의 붕괴와 새로운 가족 서사를 창출하는 등 전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소위 '막장'적 전개를 보여주어 인물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TV 드라마 수용집단은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적 집단이다. 이 집단의 특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 문화적 집단이 지닌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한다는 뜻이 된다. 아울러 TV 드라마 수용자의 이념과 행동양식을 밝히는 일은 콘텐츠의 관습과 이념, 나아가 그 문화의 속성과 의미를 밝히는 일이 될 수 있다. 기능주의적으로 바라본다면, 콘텐츠가 지닌 명시적 기능(manifest function)과 잠재적 기능(latent function)을 살피는 일이 된다.

이 연구는 교육, 입시 등 협소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용자 의식을 살피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빅데이터라는 양적 분석을 위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건강한 다층의 논쟁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앞으로도 TV 드라마 수용자들의 이념과 행동양식 등 다양한 국면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후속 연구로 미루어둔다.

## References

- [1] T. S. Hyun, "Literary theory of Pierre Bourdieu", *Arko Culture Art*, pp.142-148, 2001.
- [2] S. H. Kim, W. H. Jang, "Content consumption analysis of overseas Korean wave fans - KBS World Facebook page comments text analysis", *Glocal Culture and local Development*, no.10, pp. 71-95, 2017.  
DOI: <https://doi.org/10.34227/tjocc.2017..10.71>

- [3] M. S. Ann, "A Study on Audiences' Response to Family Crisis Drama: Focusing on Social Big Data Analysis on TV Drama "Sky Castle"", *The Society Of Korean Literary Therapy*, vol.56, pp. 179-217, 2020.  
DOI: <https://doi.org/10.20907/kslt.2020.56.179>
- [4] K. A. Kim,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b Novel Reader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7, pp. 551-558,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7.551>
- [5] K. A. Kim, "A Study on the Conflicts Structure of Narrative and Aesthetic Consciousness of Consumers -Using the drama VIP as an example",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vol.25, no.2, pp. 131-162, 2021.
- [6] J. H. Chun, "The academic background, class, and family in the drama "Sky Castle" and Shin Jaemin's case" *History Criticism*, no.126, 2019.  
DOI: <https://doi.org/10.38080/crh.2019.02.126.423>
- [7] M. J. Joo, "A "dangerous" ball launched by <Penthouse>- The implications of the way terrestrial broadcasters survive according to the changing broadcasting environment", *Korean Modern Literary Criticism*, no.70, pp. 207-231, 2021.  
DOI: <https://doi.org/10.35832/kmlc..70.202106.207>
- [8] E. Illouz, *Cold Intimacies : Making of Emotional Capitalism*, Dolbegae, 2010.
- [9] E. Illouz, *Consuming the romantic utopia*, Leehaksa, 2014.
- [10] H. Jenkins, *Conversions Culture*, Vizandbi, 2008.
- [11] M. J. Nam, B. J. Jung, S. K. Oh, "Reconsideration of Educational Fever, Meritocracy, and Educational Fairness: focusing on the discourse analysis of drama "SKY castle"", *Sociology of Education*, vol.29, no.2, pp. 131-167, 2019.  
DOI: <https://doi.org/10.32465/ksocio.2019.29.2.005>
- [12] S. J. McNamee, R. K. Miler, *The meritocracy myth*, Sai, 2015.

김 경 애(Kyung-Ae Kim)

[정회원]



- 199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 200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 2010년 3월 ~ 2013년 2월 :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국어교육, 문학 및 문화 관련 융합, 리터러시 교육